

소통

Sharon Winzeler
재속 프란치스코회 소통 위원회장

포용적인 다언어 소통

캐롤라인 안델, OFS
성프란치스코 지구 형제회 회장

피조물의 찬가에 대한 묵상 -- 1부(2부는 여름호 TAU-USA에서 이어집니다)
지극히 높으시고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주여!
찬미와 영광과 칭송과 온갖 좋은 것이 당신의 것이옵고
호올로 당신께만 드러져야 마땅하오니 지존이시어!
사람은 누구도 당신 이름을 부르기조차 부당하여이다.
"모든 피조물이 노래합니다"
프란치스코 수도회 John De La Riva 신부 OFM
전국 영적보조자 협의회

매우 유용하고 겸손하며 소중하고 정숙한 자매인 물을 통해 주님을 찬미하십시오.
자매인 물과 H2O 프로젝트
Cathy Roszhart, OFS
St. Thomas More 지구 부회장

아리답고 재롱피고 힘세고 용감한
불 형제 의 찬미함을 내 주여, 받으소서
그로써 당신은 밤을 밝혀 주시나이다

불 형제
캐슬린 모랄로, OFS
국가 FY/YA 위원회 의장

우리를 지탱하고 다스리시며,
형형색색의 꽃과 허브로 다양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의 자매 어머니 대지를 통해 주님을 찬미합니다.
자매 어머니 대지 - 브렛 토먼, OFS -

소통

Sharon Winzeler
재속 프란치스코회 소통 위원회장

월례회가 이번 주일 오후 2시 아니면 2시 30분에 시작하나요? 와서 보시오를 몇일에 하기로 했나요?

20세기에는 이러한 질문들은 대면이나 전화 통화를 통해 답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정보와 소통은 단위, 지구, 국가 형제회 웹사이트나 이메일, 디지털 소식지에서 이루어집니다. 효과적인 온라인 소통은 **OFS(재속 프란치스코회)**에 대해 더 알고 싶거나 자신의 소명을 식별하려는 이들과 우리의 소명을 나누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상호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하기에 국가형제회 평의회(**NAFRA**)는 2022년에 이를 3개년 우선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였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노력해왔습니다.

NAFRA(국가형제회 평의회) 평의원은 우리의 가치관을 분명히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봉사, 단순, 기도, 겸손의 삶에서 오는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년간 이루어진 소통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료를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국가 웹사이트 업데이트.
- 자료의 스페인어와 한국어 번역.
- 미국 국가형제회 전역에 이메일을 발송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소셜미디어나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는 회원들도 포함하여 모든 회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 개선.
- 시각 및 청각에 어려움이 있는 회원들도 자료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출판물 개선.
- 단위 형제회에서 자료를 더 쉽게 읽고, 인쇄하고, 맞춤화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자료 업데이트.

가장 최근의 소통 변화 중 하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생성된 이메일 목록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회원에게 이메일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많은 회원이 이번 **TAU-USA** 소식지를 이메일로 받으셨을 겁니다.

TAU-USA는 계속 우리 형제회의 주요 소통 수단 중 하나입니다. 몇 년 전 인쇄와 우편 발송 비용의 급등으로 **NAFRA**는 인쇄본 발행을 년 한번으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디지털 전용 호로 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는 회원들을 위해 **TAU**를 가정에서도 쉽게 인쇄할 수 있는 간단한 버전으로 온라인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한 **TAU-USA**의 스페인어판은 계속 제공되고 있으며, 선택된 기사들은 한국어로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가형제회 웹사이트는 여러 지구형제회 간의 회원들을 연결하고 중요한 정보를 나누는 데 있어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행사 소식, 영적 자료, 양성 자료 등 어떤 내용이든 정기적으로 웹사이트를 검색하면 최근의 형제회 활동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단위, 지구 형제회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 웹사이트, 소식지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소통 위원회의 목표 중 하나는 웹사이트 운영과 소식지 발행을 위한 모범 사례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팁을 종합한 안내서를 올해 안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효과적인 소통은 회원들 간의 견고하고 상호 지지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며, 변화의 속성을 지닌 우리의 소명을 함께 나누는 데에도 중요합니다.

포용적인 다언어 소통

캐롤라인 안델, OFS

성프란치스코 지구 형제회 회장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표현 가운데 하나는 “미국은 용광로(melting pot)다” 라는 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비유가 과연 적절한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의문이 듭니다. 용광로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녹여 하나의 단일한 형태로 만들어 버립니다. 저는 그것이 끈적거리고 단조로운 하나의 덩어리를 떠올리게 합니다. 전혀 아름답지도, 매력적이지도 않은 모습입니다.

미국의 다양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할 때, 샐러드 볼이 더 적절한 비유로 그껴집니다. 샐러드는 다양한 색깔, 질감, 맛이 어우러져 보기에 즐겁고 건강에도 유익한 음식을 만들어냅니다. 이는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 피부색을 지닌 사람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훨씬 더 닮아 있습니다.

미국에는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 형제회의 많은 회원들도 다양한 문화권에서 오셨고, 영어 외의 여러 언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미국에서 태어나 자랐고, 어떤 분들은 어린 시절이나 성인이 되어 이민을 오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영어를 익혀 자유롭게 사용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남부 캘리포니아에 있는 성 프란치스코 지구에서는 회원의 거의 40%가 한국어를 사용합니다. 베트남어를 사용하는 형제회가 두 곳 있고,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형제회도 두 곳 있습니다. 또한, 타갈로그어를 사용하는 회원들이 다수를 이루는 형제회도 있습니다.

이러한 언어적 다양성은 관구의 소통과 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지역 모임이나 형제적 방문, 사목 방문, 총회와 같은 행사를 계획할 때에도 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지구형제회 집행 평의회(REC)에는 스페인어와 한국어를 구사하는 회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전 평의회에는 베트남어를 사용하는 회원도 있었습니다. 현재 세 명의 지구형제회 회원들이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요 문서들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들에는 분기별 지역 뉴스레터의 일부, 총회에서 배포되는 자료들, 그리고 기타 지역 문서들이 포함됩니다.

총회에서는 모든 참석자가 발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물이 제공됩니다. 모든 미사는 네 가지 언어로 진행되며, 때때로 성가도 다른 언어로 불러집니다.



2025년 총회 참석자들

지구형제회 피크닉 모임에서는 언어 차이가 함께 먹고, 놀고, 웃는 데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특히 다양한 나라의 맛있는 음식을 나눌 때 그 즐거움은 더욱 커집니다. 회원들은 필요할 때 기도문과 활동자료를 번역하는 데 서로 도움을 줍니다. 그날의 하이 라이트 중 하나는 각 문화 그룹이 점심 전, 자신들의 전통 방식으로 감사 기도를 드리는 순간입니다.

지난해 지구형제회 모임의 주제는 성 프란치스코의 성흔이었습니다. 두 명의 OFM 발표자가 있었으며, 한 분은 영어를 사용하고 다른 한 분은 한국어를 발표했습니다. 국제적인 팻릭 점심을 나눈 후에는, 음악과 함께 성흔 사진들을 보여주는 파워포인트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이어진 토론 시간에는 회원들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미리 미리 번역된 질문지가 제공되었습니다.

이처럼 다문화, 다언어 지역에서 일하고 협력하려면 특별한 계획과 번역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일부 작업은 번역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도전은 충분히 감당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회칙 제19조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회원들은 평화의 전달자로서 간단없이 평화를 건설해야 하는 자임을 기억하고, 누구에게도 신적(神的) 요소가 있으며, 사랑과 용서로 사람을 변화시킬 힘이 있음을 신뢰하고, 대화를 통해서 일치와 형제적 조화의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회원들은 완전한 기쁨의 전달자이므로 어떤 처지에서든지 다른 이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가져다주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

.

John De La Riva OFM



내가 처음으로 “피조물의 찬가”를 접했을 때, 나는 그 안에 담긴 기쁨과 선하신 하느님께 드리는 찬양의 영성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 같아 단숨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때 저는 성프란치스코의 삶이나 이 찬가가 쓰인 배경에 대해 잘 알지 못했지만, 웬지 그가 밝은 여름날, 세상 근심 없이 넓은 꽃밭을 자유롭게

뛰노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심지어 믿음이 약한 이에게조차, 주님의 축복이 너무나 분명하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 말이죠. 과연 어떤 상황에서 이처럼 깊은 찬가가 탄생했을가요? 무엇이 프란치스코 성인의 마음을 이토록 사로잡았을까요?

이 찬가가 쓰였을 즈음, 프란치스코 성인은 이미 그리스도의 “음유시인”으로서 20여년의 여정을 걸어온 상태였습니다. 그는 라 베르나 산에서 40일 밤낮을 고독 속에서 vigil(철야 기도)와 금식과 고행에 전념하던 중 그리스도의 오상(五傷, stigmata)을 받습니다. 산에서 내려올 때 그는 극심한 피로와 병, 그리고 거의 실명에 가까운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산 아래로 내려와 산 다미아노의 거처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클라라 성녀와 그녀의 자매들로부터 따뜻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마치 주님의 변모를 목격한 베드로처럼, 프란치스코 성인 역시 그 산에서의 체험을 통해 자신의 삶과 고통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비추어지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과의 일치이며, 하느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과의 연결을 확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삶의 고통과 기쁨 사이에는 더 이상 경계가 없었습니다. 지친 육신이지만, 하느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영광 돌리고자 하는 영혼의 깊은 열망과 벅찬 기쁨을 더는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땅과 하늘의 모든 피조물 하나하나를 마치

손을 내밀어 초대하듯 부르며, 모두 함께 하느님을 찬양하는 노래에 동참하자고 외쳤습니다.

“외치는 소리:” 프란치스코 성인은 진정한 음유시인답게, 우리에게도 손을 내밀어 초대합니다. 우리 각자의 고유하고도 보편적인 “순례자”의 여정속에서, 우리 또한 노래하고 춤추며 하느님을 찬미하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 숨 쉬며 존재하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다시금 기억하라고 초대합니다.

성 프란치스코의 삶은, 우리 역시 시련과 메마름, 의심과 주저함 속에서도 겸손히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께 맡기도록 용기를 줍니다. 그분은 우리의 희망의 빛이십니다.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는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도 사랑으로 우리를 지탱하고 이끄시는 그리스도의 확실한 존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시련의 무게나 죽음의 그림자조차 우리의 기쁨을 침묵시키거나 평화를 깨뜨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초기, 제 이웃 동네에서는 어느 날부터인가 플루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청년이 골똘히 생각에 잠긴 채, 단순한 악기를 연주하며 거리를 거닐고 있었죠. 그는 어느 순간 발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용히 길을 따라 사라졌습니다. 그는 마치 프란치스코처럼, 요한 세례자처럼, 이 시련의 광야 속에서 희망을 알리는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희망의 희년**인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은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으로 새로워지기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의 희망은,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게 만드는 힘일 뿐만 아니라,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하느님을 찬양하며 인내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힘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각자의 방식으로, 믿음과 희망, 이웃 사랑 안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는 “외치는 소리”가 되어 봅시다. 어쩌면 우리의 삶속에서 울려 퍼지는 “노래”가 다른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해주는 멜로디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매우 유용하고 겸손하며 소중하고 정숙한 자매인 물을 통해 주님을 찬미하십시오.

자매인 물과 H2O 프로젝트

Cathy Roszhart, OFS

St. Thomas More 지구 부회장

“우리의 세계는 식수 공급을 받을 수 없는 가난한 이들에게 심각한 사회적 빛을 지고있다.”

-프란치스코 교황

깨끗한 식수 공급을 받을 수 없는 가난한 지역사회에 크리스찬적 유대와, 옹호와 재정지원 홍보를 위한 국제적인 프로젝트인 H2O 프로젝트에 대해 당신은 알고 도네션을 한다. 작년엔 우리의 국가 형제회에서는 H2O 프로젝트를 위해 총 \$10,400 을 the Well4Africa social initiative 도 포함된 세 개의 별도 단체에 기부 하였다. 총 기부금액 중 \$4,400 은 Well4Africa 으로 기부되었다.

H2O 프로젝트는 주로 사순시기에 홍보되었다. 그러나 기부금은 일년 내내 할 수있다. 이일을 바탕으로 성 토마스 모어 지구에서는 2024 년 여름에 모금활동 하는 목적이 생겼다. 온세계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깨끗한 식수 제공을 위한 집단 모금활동에 성 토마스 모어 지구형제회 회원들이 참여하도록 하였다.

‘... 내가 목마를때 너는 나에게 마실 것을 주었다 ... (마태 25:35)

저의 남편 스티브와 나는가을에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스페인의 콤포스펠라산티아고 (400 마일) 까지 걷는 산티아고 카미노 순례를 준비하고 있었다. H2O 프로젝트를 위해 돈을 모으는 아이디어에서 영감을 얻어, 우리의 지구형제회에 속한 모든 회원들에게 우리가 걷기로 계획한 마일 에 대한 달러금액을 약속함으로써 우리의 순례를 후원하는것을 고려해 줄것을 부탁했다.

우리의 카미노 트레킹 와 식수 보급 프로젝트 사이의 연관성은 명백해 보였다.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 순례자들은 하루종일 끊임없이 수분을 유지한다. 반대로 당신이 가지고

가야할 물의 양을 상기시키는 것은 필수적이다. 당신은 당신이 너무 많은 물로 불필요한 무게가 되지않고 병을 채울 수 있는 다음 기회에 도달 할 때까지 충분한 물을 원합니다.

그리고 공공 분수를 지날때 마다, 물이 휴대 가능하고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우리가 걷는 동안 물의 필요성에 대한 이 위대한 인식으로, 젊은 여자가 우리 물병에 얼음을 채우겠다고 했을 때, 카페에 있던 여자가 우리 병에 수돗물을 다시 채웠을 때 처럼 우리가 받은 여러가지 친절한 행동을 진심으로 감사했다. 그것들은 대단한 은총이었다. 결국 우리의 카미노의 경험은 이세상에서 식수 공급 부족으로 목말라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한 우리의 공감을 증가시켰다.

우리는 순례에서 돌아온후 후원금을 받았다. 개인 24 명과 3 개의 형제회의 평의원이 아낌없이 기부금을 주셨다. 올해 초에 St. Thomas More 지구 형제회는 H2O 프로젝트를 위해 \$3,270 체크를 국가형제회에 보냈다.

아리땀고 재롱피고 힘세고 용감한
불 형제 의 찬미함을 내 주여, 받으소서
그로써 당신은 밤을 밝혀 주시나이다
불 형제
캐슬린 모랄로, OFS
국가 FY/YA 위원회 의장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성 프란치스코처럼 불을 "형제"로 여깁니다. 모닥불 주위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것, 추운 밤 장작 난로 앞에 웅기종기 모여 앉는 것, 분위기를 더하기 위해 촛불을 켜는 것, 불을 피워 요리하는 것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벽에 해가 뜨면 모두가 그것을 창조하신 하느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 낮에 눈이 밝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밤이 되면 모두가 또 다른 피조물인 불 형제를 위해 하느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 밤에 눈이 밝아지기 때문입니다." (아시시 집전 #83)

불은 모닥불 속에서 춤을 추고, 음식을 만들고, 몸을 따뜻하게 하고, 길을 밝혀줄 때 아름답고, 즐겁고, 강력합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에 사는 우리는 그 불춤이 안전의 경계를 넘거나, 그 힘이 맹렬한 재앙으로 치닫고 모든 것을 파괴할 때 가장 큰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6 년도 더 전에, 주 역사상 최악의 화재로 15 만 에이커가 넘는 땅이 파괴되고 85 명이 사망했으며 파라다이스 마을은 완전히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최근 기념일을 맞아 모였습니다. 그 끔찍한 시절을 되새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을의 희망찬 미래를 축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역 학교 학생들의 손자국을 세라믹 타일로 만든 벽화가 공개되었습니다. 일몰을 묘사하도록 배치된 화려한 손자국은 단결된 공동체의 힘을 강조했습니다. 파라다이스 재건 재단은 화재 이후 마을의 풍경이 극적으로 변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무가 제거되면서 이전에는 가려져 있던 일몰과 일출을 포함한 새로운 풍경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일몰의 아름다움은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비극적인 사건을 깎아내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로 얻은 좋은 결과를 목격하기 위해, 잿더미 속에서 회복력, 기쁨, 결단력, 그리고 용기를 바탕으로 더욱 강한 공동체가 탄생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는 단합된 노력의 결과입니다.

최근 팰리세이즈 화재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참혹한 상실 속에서 위안을 찾는 사람들은 희망을 찾았습니다. 한 젊은이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동네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습니다. 집은 잃지 않았지만, 주변 동네 대부분은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자주 모여서 큰 고통을 겪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논의합니다."

팰리세이즈 화재 당시, 완전히 파괴된 배경 속에서 온전하게 발견된 파란색 폴크스바겐 경화물 승용차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화재에 일부만 영향을 받은 곳곳에 서 있는 이 승용차는 시민들에게 힘든 시련 속에서도 삶을 재건하는 것이 가능함을 보도록 격려했습니다.

프란치스코도 불 형제의 위험한 특성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불을 존중했던 이야기는 많습니다. 그는 망토가 타고 있을 때조차도 어떤 불도 끄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불을 끄는 대신 그는 불 형제가 스스로 꺼지게 내버려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눈을 소작하는 트라우마에 직면했을 때, 그는 불 형제를 칭찬하며 평생 그를 사랑해 왔다는 것을 그에게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신을 만드신 창조주께 기도하오니, 이제 당신의 열기를 다스려 주시어 제가 건딜 수 있도록 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아시시 집전 #86)

그러므로 불은 파괴적일 수 있지만, 우리의 길을 비추고 거룩함을 향한 우리의 여정을 인도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새 불사조처럼 잿더미에서 나올 것이며, 완전히 회복될 것이며, 다시 세워지고 포효할 것이다." (이사야 14:24) 불 형제를 통해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를 지탱하고 다스리시며,
형형색색의 꽃과 허브로 다양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의 자매 어머니 대지를 통해 주님을 찬미합니다.
자매 어머니 대지 - 브렛 토먼, OFS -

800 년 전 성 프란치스코는 그의 걸작 기도시, 태양의 찬가를 움브리아 방언으로 작곡했습니다. 그는 성 클라라와 가까이 있기 위해 성 다미아노 교회에서 근처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늙고 병약해 거의 실명 직전이었던 그는 자신의 수도사 중 한명에게 그것을 받아쓰게 하며, 마음의 내면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아시시에 가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동의할 것입니다. 그 세라핌의 도시에서는 하느님의 경이로운 창조물에 대해 찬미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웅장한 움브리아 산맥과 광활한 스피레토 계곡을 창조하실 때 특별한 무언가를 염두에 두셨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프란치스코 성인이 하느님의 아름다운 창조물을 바라보고, 모든 피조물과 친밀감을 느끼며, 자매이신 어머니 대지를 위해 주님을 찬미하고 싶어 하는 것은 쉬운 일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찬가는 풍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성 프란치스코는 그저 정원 한편의 새물통의 조각상으로만 머물 분이 아닙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하느님의 창조 사업을 결코 찬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느님의 창조 사업을 통해 창조주 하느님을 찬미합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창조물을 바라보면서 창조주를 보았습니다. 첼라노의 토마스는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예술에서 그는 예술가를 찬양합니다. 피조물에서 발견하는 모든 것을 창조주께 인도합니다. 그는 주님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작품을 기뻐하며, 그 작품들의 아름다운 전시를 통해 생명을 주는 이유와 원인을 바라봅니다." (Second Life, 124 장, 165 장)

프란치스코 성인은 모든 창조물이 선하다고 믿었습니다.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를 아는 우리에게 이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창세기 1:31 참조) 하지만 프란치스코가 살았던 시대는 이원론적 세계관이 만연했습니다. 카타리파와 같은 그 시대의 많은 집단은 "영"만이 선하고 "물질 세계"는 타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욱이, 프란치스코가 창조된 세상에 대해 갖는 관계는 가톨릭 신앙을 고수하는 많은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네, 하느님께서서는 인간에게 모든 동물에 대한 지배권을 주셨습니다(창세기 1:26, 28 참조).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를 "지배"로 오해했습니다. 그들은 이 단어를 주인으로서 창조물을 지배하고, 청지기로서 창조물을 보호하지 않으려는 핑계로 사용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창조된 세상과의 관계를 형제애로 여겼습니다. 성 보나벤투라는 이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만물의 근원이신 하느님을 깊이 묵상하며, 더욱 충만한 경건함으로 가득 찬 성 프란치스코는 아무리 작은 존재라도 '형제'나 '자매'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신과 같은 기원을 공유하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대전설, 8장 6절)

그래서 이 말은 그의 마음과 정신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이 시구는 "원소", 즉 불, 공기, 물, 흙에 바쳐진 연들 중 마지막 연입니다. 고대부터 이 네 가지 원소는 모든 물질의 기본 구성 요소라고 여겨져 왔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연은 가장 주목할 만한데, 흙은 견고함과 안정성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프란치스코 성인은 지구를 단순히 "자매"로만 보지 않습니다. 성별이 구분되는 이탈리아어에서 지구를 뜻하는 단어는 여성형인 '테라(terra)'입니다. 그는 땅을 자신의 "어머니"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땅이 "지탱하고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이 몇 마디는 프란치스코 성인이 어떻게 하느님의 섭리가 땅을 통해 역사한다고 믿었는지 보여줍니다. 이는 하느님에 대한 온순하고 형제애적이며 자녀다운 신뢰를

시사합니다. 늘 시인이자 음유시인이었던 성 프란치스코는 창조의 아름다움을 인식했습니다. 실제로 땅은 색깔 있는 꽃과 풀을 곁들인 다양한 열매를 맺습니다.

태양의 찬가는 머리보다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입니다. 성 프란치스코의 신학은 무엇보다도 삶으로 실천되었으며, 그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새기며 살았습니다.

우리도 성 프란치스코와 시편 저자처럼 하느님께 이렇게 노래합시다. "[모든 피조물]은 주님의 이름을 찬미할지어다. 주님의 이름만이 홀로 높으시고, 주님의 위엄은 땅과 하늘 위에 높으시다." (시편 148:13)

